

교육 공무원 '기강해이' 도 넘었다

지난 5년간 광주·전남서 1,100명 경찰 조사 비위사실 징계위 회부 전남 86건·광주 44건

음주운전·금품수수·성범죄 등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광주·전남 교육공무원이 지난 5년 동안 1,100여명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각종 비위사실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례도 130건에 이른 것으로 확인돼 교육행정을 책임지는 공무원들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경교·견책·감봉 등 솜방망이 처벌이 교육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어 비위 적발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5일 교육부와 경찰청의 '최근 5년간 지방교육청 범죄현황' 및 '지방공무원 비위사실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결과' 자료 등에 따르면 2013~2017년 광주 302명·전남 836명 등 모두 1,138명의 교육공무원이 경찰 수사를 받았다.

전남은 교육공무원 범죄행위가 경기(1,943명)·서울(1,002명)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수치다.

광주는 세종(55명)·울산(242명)·대전(250명)에 이어 4번째로 낮았다. 전국적으로 9,812명의 교육공무원이 수사선상에 올라 조사를 받았다.

광주는 강력 6명·절도 5명·폭력 36명·지능 33명·기타(교통관련·도박 등) 222명 등이 범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이 가운데 142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전남 교육공무원 가운데 25명은 경찰에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조사를 받다가 뒤늦게 신분이 들통나기도 했다. '신분은폐 교육공무원'은 총 12건·울산 7건에 비해 전남이 2~3배 가량 많아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은 2013년 106명·2014년 104명·2015년 171명·2016년 237명으로 급증했다가 지난해 218명으로 소폭 떨어졌다.

지역 교육공무원들의 범죄혐의에 대한 경찰조사와 함께 각종 비위사실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육공무원(교사 제외)은 광주 44건·전남 86건으로 나타났다.

주요 비위현황은 광주의 경우 음주운전 13건·무면허운전 13건·성범죄 2건·기타 등이며, 전남은 음주운전 49건·업무태만 10건·성범죄 5건·뇌물 및 금품수수 1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전남 교육공무원 가운데 25명은 경찰에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조사를 받다가 뒤늦게 신분이 들통나기도 했다. '신분은폐 교육공무원'은 총 12건·울산 7건에 비해 전남이 2~3배 가량 많아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비위별 징계처분은 광주가 견책 12건·1개월 감봉 11건·2개월 감봉 6건·3개월 감봉 2건·정직 1개월 1건·정직 2개월 3건·정직 3개월 3건이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강등·해임·파면은 각각 1건·3건·2건 등이다.

전남은 경교 9건·견책 17건·1개월 감봉 21건·2개월 감봉 2건·3개월 감봉 7건·정직 1개월 12건·정직 2개월 7건·정직 3개월 4건이며, 강등·해임·파면은 1건·3건·2건이다.

전문가들은 교육공무원들의 비위행위와 범죄행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은 징계 등 처벌수준이 미약한 것에 원인을 두고 있다.

김현아 의원은 "일선학교의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음주운전과 성범죄 등 각종 비위행각을 벌이고 있다"며 "교육당국에서 경교나 견책·감봉 등의 솜방망이 처벌이 교육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는 만큼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꼬집었다.

고위소방공무원 지역편차 광주출신 7년간 진급 '0명'

인재근 의원 "차별 없도록 인사시스템 개선 필요"

광주지역 출신 소방공무원 중 최근 7년간 고위소방공무원 진급사례가 단 한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7년간 소방정 이상 소방공무원 진급현황'에 따르면 2011~2017년 진급한 소방정(4급 상당) 이상 고위소방공무원은 총 66명이다.

연도별로는 2011년 5명, 2012년 8명, 2013년 4명, 2014년 1명, 2015년 16명, 2016년 14명, 2017년 18명이 각각 진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81.8%인 54명이 중앙본부인 소방청 소속이었으며, 서울본부 5명, 경기와 부산본부 각 4명 등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경북·경남·대구·부산 등 영남권 출신이 25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경기·인천이 15명, 충북·충남·대전이 14명, 전북·전남 출신이 7명, 강원 3명, 제주 2명 등이었다.

반면, 광주 출신은 최근 7년 동안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진급한 경우도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 의원은 "고위 진급자 대다수가 중앙에 집중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소속과 출신지역에 따라 고위 진급자의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인 의원은 "고위 진급자 대다수가 중앙에 집중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소속과 출신지역에 따라 고위 진급자의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광주·전남 소방관 2명 중 1명 '건강이상'

"국가직 전환 등 처우 개선 빨리 이뤄져야"

광주·전남 소방관 인원 중 절반이 '건강이상'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15일 소방청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광주 지역 소방관 1,202명 중 55.9%인 672명이 건강이상 진단을 받았다.

전남 역시 2,340명 중 47.4%인 1,110명이 유소견 또는 요관찰 등 이상 진단을 받았다.

소방관은 국가직 공무원이 아니라

각시·도에 소속된 공무원이기 때문에 특수건강검진 예산도 시·도별로 차이가 난다. 올해 소방관 1인당 특수건강진단 예산은 광주 25만원, 전남 20만원(전국 평균 22만805원)이다.

소 의원은 "소방관의 현신이 지역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특수건강진단의 보편적 기준을 마련하고 유해인자가 반복기를 거친 후 퇴직 후에도 발병할 수 있기 때문에 사후 추적관리도 지원해야 한다"며 "소방관 처우개선의 핵심인 국가직 전환 역시 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소방관의 현신이 지역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특수건강진단의 보편적 기준을 마련하고 유해인자가 반복기를 거친 후 퇴직 후에도 발병할 수 있기 때문에 사후 추적관리도 지원해야 한다"며 "소방관 처우개선의 핵심인 국가직 전환 역시 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함평 폐기물업체서 60대 추락사

15일 오전 9시 45분께 함평군 함평읍 한 폐기물처리업체에서 근로자 김모씨(60)가 6m 아래로 추락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옥상에선 작업자들이 폐기물 수집작업 과정에서 나온 먼지와 톱밥 등을 빨아들이기 위해 집진기를 청소하던 중이었다. 옥상에는 플라스틱으로 된 채광장이 파손돼 있었다.

경찰은 김씨가 옥상에 설치된 채광장에 올라섰다가 낡고 노후한 플라스틱이 파손되면서 추락한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함평=윤예중 기자

오늘 수능 전 마지막 모의평가

수능 전 마지막 전국단위 모의평가인 전국연합학력평가가 16일 전국 1,835개 고등학교에서 치러진다.

수능과 마찬가지로 오전 8시 40분에 시작해 오후 5시 40분까지 5교시에 걸쳐 진행된다. 한국사는 꼭 응시해야 하며, 수학영역은 가형이나 나형을 선택해 시험을 보면 된다. 성적처리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하며, 성적표는 31일 제공된다.



새내기 소방관 현장실습

15일 오전 광주 북부소방서에서 광주소방학교 신입 소방공무원과정 교육생들이 소방서 현장 실습을 교육 받고 있다. 새내기 소방관들은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동안 선배 소방관들과 함께 화재·구조·구급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황에 대한 대처요령을 익힌다. /광주 북부소방서 제공

"절도의 주범은 견물생심"



○...원룸에 사는 20대가 이웃으로 배달은 택배물을 훔쳤다가 CCTV에 찍히는 바람에 결국 덜미.

○...15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모씨(27)는 지난 2일 오후 2시 40분께 서구 금호동 한 원룸 택배보관함에 옆집 고 모씨(43)가 주문

한 25만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에게 온 택배상자로 가린 뒤 들고 간 것.

○...이를 조사하던 경찰은 "자신의 택배인 것처럼 위장해 가져갔지만 그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찍히면서 검거할 수 있었다"며 "절도의 주범은 견물생심이다"고 일침.

/김종찬 기자

회사 사정상 급매합니다.

-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근린상가 (중동 락희호텔 근처)
- 6층중 4층 전체(401호) 2012년 신축
- 210평 (실평 147평),코너, 전망최고
- 모든 업종 오픈가능
- 감정/시세 - 14억
- 급매 - 8억 8천만원 (일시불 완불시 대폭조정가)
- 문의. 010-6834-7400

나주, 전원주택 부지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거리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상담후 결정
- 문의. 010-3605-5000